

전남 특성화고 4명 중 3명 취업... 전국 최고

12월 현재 64.7%... 전년보다 4개월 앞서 도달

목표 75% 달성 무난할 듯... '기업맞춤 교육' 주효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고 취업률을 기록한 올해 67.3%를 4개월 앞서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이면 75%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2월1일 현재 전남지역 59개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3학년 6331명 가운데 64.7%인 3950명이 취업했다. 이는 전년 취업률 67.3%를 4개월에 앞서 육박한 기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업률 산출기준인 내년 4월1일이면 7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다. 지난 2011년 30.4%에서 2012년 36.3%, 2013년 38.8%로 차분히 오르다가 올해 67.3%를 기록, 전년보다 2배 가까운 무려 28.8%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7%포인트 상승한 7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4명 중 3명은 취업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취업률이 고공행진하는 원동력은 뭘까.

전남도교육청은 무엇보다 기업맞춤 교육(MC·Mutual Creative)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MC교육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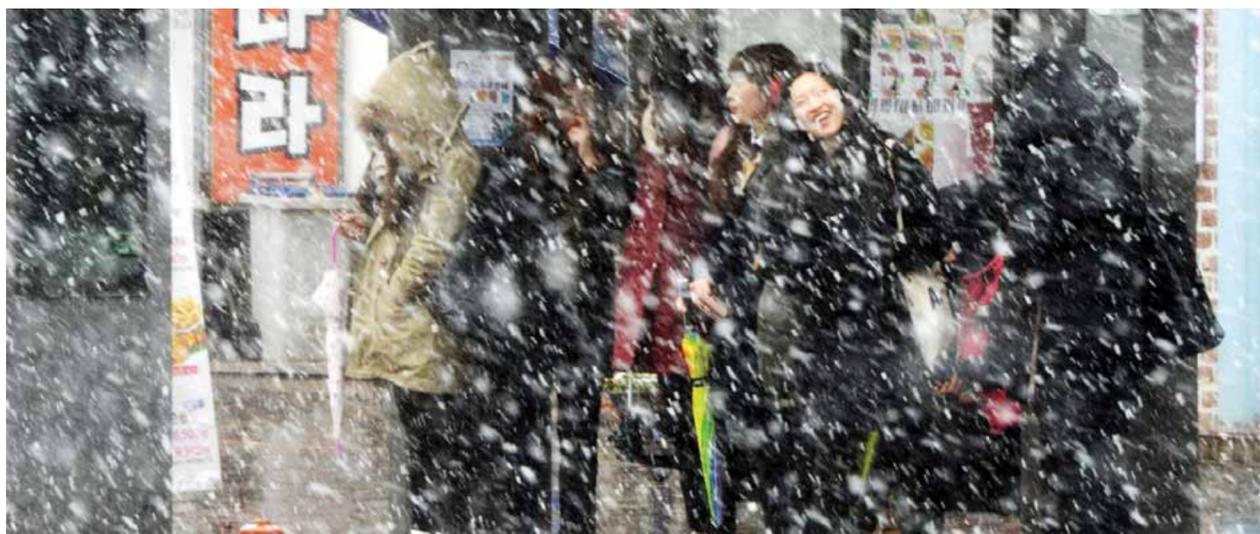
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한 시스템이다. 학교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과정을 마치 학생에 대해 기업체는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체 직원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특성화고 31개교와 기업체 136개사가 MC협약을 맺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목표제도 취업률 제고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또 전남도·중소기업청 등과 손잡고 대규모 취업박람회 연 것도 취업률 상승에 일조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취업의 질을 나아졌다.

취업자 중 행정안전부(10명)·전남도청(17명)·교육청(9명) 등 공무원 56명,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27명,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47명,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98명 등 알짜 취업이 228명에 달하고 있다.

장시준 미래인재과장은 "특성화고의 경쟁력은 진학보다 취업에 있고, 취업을 해야 진학도 쉬워진다"면서 "기업맞춤교육·국가기술자격취득 목표제 등 취업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늘리고 취업컨설팅을 다양화한 것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대설주의보 16일 오후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이 함박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와 화순, 나주, 진도 등 전남지역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5~10cm.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기념재단 이사장 29일 재선임키로

안병욱 교수 "해외활동 많아 맡기 어렵다" 고사

5·18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제12대 이사장으로 결정한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직을 고사했다.

그는 16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이사회 측으로부터 (내가) 5·18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결정됐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내년에 6개월 가량 해외 연

구활동을 떠난다. 여러 여건상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18 기념재단) 내부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면서 "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 5·18 기념

재단에 (몸을 담게 되면) 오히려 힘을 보태는 데 어려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회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나란 질문에 대해서 "(언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사장직을 고사하면서 이사회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그간 후보 공모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으나 개정된 정

관에 따라 이번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각 이사가 후보를 추천, 재적 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을 골자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사회는 후보 공모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이사진간 또는 5월 관련단체간 갈등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사장 선출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추천자에게 사전 연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의 선(先) 결정, 후(後)동의를 구하는 식의 선출 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해질녘 17:22
달 뜨기 02:22
달 지기 13:56

손이 쭉뚱-겨울 바람 때문에 서늘해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 5~10cm.

◇지역별 날씨(°C)

광주	눈	-5/0	보성	구름맑음	-6/-1
목포	눈	-4/0	순천	구름맑음	-5/0
여수	구름맑음	-4/0	영광	눈	-5/-1
나주	눈	-5/0	진도	눈	-2/1
완도	눈	-3/1	전주	눈	-7/-2
구례	눈은뒤꿈	-6/-1	군산	눈	-7/-2
강진	눈은뒤꿈	-5/0	남원	눈	-7/-1
해남	눈	-4/1	홍산도	눈	-1/2
장성	눈	-6/-2			

◇비다 날씨

시/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남부 먼바다	서~북서	3.0~6.0	서~북서	3.0~5.0
남해 앞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2.0~3.0
서부 먼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면바다(서)	서~북서	3.0~6.0	서~북서	3.0~6.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57	22:05	03:02	15:46
여수	05:40	17:29	11:32	23:41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	☁	☁	☁	☁	☁	☁
-3/2	-4/5	1/5	-3/2	-2/5	-2/5	-2/6

광주거주 고려인 권익보호 나선 법원

광주지법, 오늘 광산구 새날학교서 '법문화마당' 행사
사법제도 소개, 통역 서비스·법률 지원센터 등 안내

광주 법원이 고려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광산구 새날학교에서 '고려인 마을·새날학교 방문 법문화 마당'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새날학교는 지난 2007년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대안학교로, 법원은 이날 지역에 정착한 20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우리말에 서툴러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법원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해 국내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민·형사 재판의 기본적 개요와 통역인 서비스, 각종 법률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러시아어 법정 안내 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 고려인마을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고려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판·검사, 변호인 등 역할을 하는 모의재판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날학교 학생들의 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 댄스 공연대회 등 장기지랑도 결연여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능 '세계지리 오류'

629명 대학 추가 합격

출제 오류가 발생한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성적의 재산정에 따른 대학 추가 합격자는 총 629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연세적으로 학교를 옮길 경우 편입에 따른 학점 인정 등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작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정정에 따른 대학별 추가합격 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등 모두 629명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 이 제본은 '정보기기'이며, '사생활의 주권'과 '사생활'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 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프로' **맥소 '스텝'** **맥소 '크리스프'** **맥소 '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경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www.maxo.co.kr

전국 무료 천사 방문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365일 무료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599-9040

▶ 책자 무료발송 ▶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본사)2248-5600 (종로)743-8100
(강남)542-8500 (인천)516-2200
(대전)486-9944 (대구)253-4400
(부산)819-0038 호남(광주)430-8900

- 단체상담 -

지원 신청 접수중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강안본사 02)2248-5600 ◆충주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안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